



"상팔십이 내 팔자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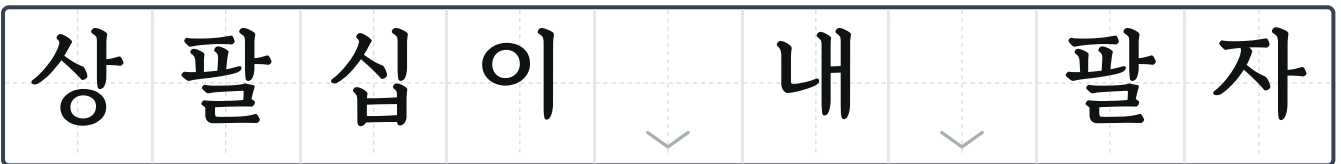
뜻: 옛날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80살이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던 것처럼,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난한 것이 마치 정해진 운명 같다고 한탄할 때 쓰는 말이에요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가난 · 팔자 · 체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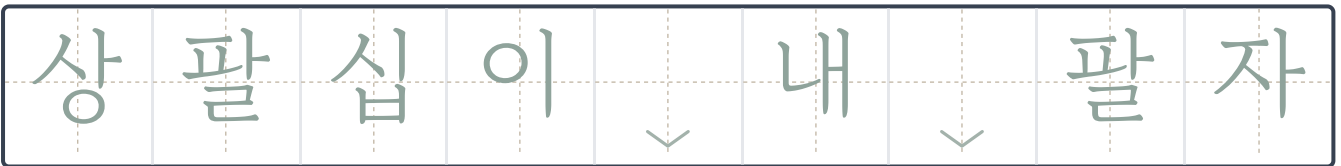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

2단계 따라 쓰기 엮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

3단계 혼자 쓰기 1,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ㅅ ㅍ ㅅ ㅅ ㅅ] [ㅅ] [ㅍ ㅅ]

웹에서 보기

